

부제 해제·심야 편성 등 택시 7000대 추가 ‘승차난 해소’

서울시, 45년만에 부제 전면해제 개인택시 심야시간대 운행 유도 법인택시 구인에도 적극 나서고 흥대·강남 등에 올빼미버스 증차



국도교통부가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해 추진한 ‘심야 탄력호출료 적용’에 따라 일부 업체가 심야 택시호출료를 인상한 가운데 지난 3일 밤 10시부터 사용자가 가장 많은 카카오택시 심야 호출료를 최대 5000원으로 인상한다. 사진은 이날 밤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카카오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후 첫 연말을 앞두고 승차난을 잡자 심야 택시·대중교통 수송력 공급 확대에 나섰다.

그동안 심야 택시 승차난은 주로 연말에 생겼지만, 올해는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부터 택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연말까지 개인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고, 법인택시 야간조를 편성하는 등 택시 7000대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종합계획을 8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크게 ▲심야택시 공급 확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버스 수송 능력 증대 ▲대시민서비스 개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안전 강화 등을 추진해 택시, 버스 등 양방향의 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10일부터 개인택시는 45년만에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 개인택시의 영업 자율권을 확대함으로써 심야시간대 추가

적인 택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이며, 야간조 투입을 통해 약 5000대의 공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인택시도 승차난 해소에 적극 참여한다. 우선 현재 운행 중인 2교대를 야

간조 중심으로 편성하고, 11월 중 취업 박람회 개최해 신규차 채용 등 구인에 적극 나서려는 한편, 근속기간을 늘리기 위한 자구 노력도 병행해 2000대를 확보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1일부터는 심야할증 조정을 시행한다. 1단계로 심야할증시간을 오전 12시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기고, 시간대별 최대 40%까지 할증률이 조정되면 심야 6시간 근무 시 월 55만원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가 시작되는 2월부터는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기본거리를 1.6km로 400m 축소하는 등 요금이 조정된다.

이외에도 승차난 지역에 시민들이 택시 잡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승차지원단 운영을 확대한다. 기존 강남역, 흥대입구, 종각 등 3개소에서 수서역, 서울역 등 승차난이 심한 지역 11개소로 늘려 택시 승차를 지원하는 입

시승차대를 설치해 현장에서 시와 택시 조합 관계자들이 승객-택시 간 1:1 매칭을 지원한다.

올빼미버스도 3개 노선(N32, N34, N72) 연장을 포함해 총 37대를 증차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만에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말 한시적으로 서울 시내 주요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88개 노선 2364대에 대해 막차시간을 연장, 올빼미버스를 확대한다.

주요 지점은 흥대입구, 강남역, 종로2가, 영등포, 신촌, 역삼, 여의도, 건대입구, 서울역, 명동, 구로역 등 11개이다.

또한 시는 택시서비스 개선의 핵심이 누구나 공평하게 택시를 잡도록 하는 것으로 보고 심야 승차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목적지 미표시제도를 우선 추진한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이주호 교육장관 ‘کم백’... MB교육 우려 확산

“경쟁교육 전면화... 교육에 상처” 전교조·대학가 등 지명철회 요구



이주호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MB교육’을 주도했던 이주호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에 교육계가 들쭉거리고 있다. 경쟁교육 가열로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몸을 낮춘 이 장관이 새로운 교육 개혁 의지를 보인 만큼 ‘MB교육’ 꼬리표 떼기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MB교육’ 설계자나 다름없는 이 장관이 다시 교육부장관에 임명된데 대해 교육단체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경쟁교육에 대한 우려와 당부는 일치한다.

전날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경쟁교육 전면화로 우리 교육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 장관 임명 강행을 규탄한다”며 “교육의 시장화 정책 기초가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달에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 장관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다.

대학가에서도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8개 단체들이 이 장관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임명 후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이 장관은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주체로 사립대학 설립 규제를 대폭 완화해 대학 생태계를 파괴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 당시 과도하게 많이 생겨난 사립대학들은 오늘날 학령인구 감소 문제와 겹쳐 정권 미달

등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장관은 총원율과 취업률 등의 성과 중심 평가지표 등으로 대학에도 경쟁구도를 심는 장본인으로 평가된다. 올해 안으로 부실대학 구조조정이 결린 대학기본역량진단 방식을 손봐야 하는 상황이라서 과거 방식의 반복 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된다.

MB 정부 당시에는 전체 대학 중 하위 15% 대학을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모두 배제시키고, 일부 대학에게는 학자금대출을 제한,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해 나가는 식의 단계적 퇴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대학을 획일적 잣대로 평가해 자율성을 저하시켰다는 진단을 받고 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이 장관의 등장으로 경쟁교육이 가열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역대 우리나라 어떤 정부도 경쟁교육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해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하은 기자

경기도, 올 우수 중소기업 310곳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2022 경기도내 중소기업 대상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 310개 도내 우수 중소기업에 지원, 총 105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중소기업 대상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대형 온라인 유통 채널에 진입, 판매 대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판매 활성화를 위한 판촉 기획전과 광고, 행사 등을 함께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며, 최근에는 급변하는 경향(트렌드)에 맞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쇼핑몰과 라이브 쇼핑앱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개척해 지원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총 310개 사의 품질 좋은 상품이 유명 온라인 플랫폼인 11번가와 인터파크 등을 통해 판매됐고, 상반기 ‘경기도 소비대전’과 하반기 ‘경기도 할인특급’ 등 정기 기획전 총 48회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당초 목표치였던 100억 원을 넘는 총 105억 원의 거래액을 달성했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벤치 등 47점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선정

서울시, 인증마크 사용 등 혜택

서울시는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벤치, 펜스 등 공공시설물 47점을 ‘제28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으로 선정해 8일 발표했다. 인증제품에는 인증마크 사용 권한과 홍보 지원 혜택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제28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은 올해 3월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총 112점의 제품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물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47점을 선정했다. 올해부터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을 연 1회, 인증기간은 3년으로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인증제에 대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통해 신청 제품 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기간 만료 후 재인증 등에 소요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부터는 인증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상·하반기 통합운영으로 연 1회 운영한다.

인증제품에는 향후 인증기간 3년 동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서울시의 홍보 지원 혜택을 제공하며, 오는 12월 19일부터 선정 업체에게 인증서와 인증패가 배부될 예정이다.

이번 제28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을 통해 현재까지 15년간 총 1423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으며, 내년부터 인증기간(3년)이 유효한 제품을 보행자 중심의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 공공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규리 서울시 디자인정책담당관은 “서울시는 인증제를 운영하면서 기존 방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관련 기준 및 수요에 발맞춰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인증대상을 확대하는 등 도시 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05 | 해짐 / 17:26

11월 9일 (수) 음력 : 10월 16일

수도권 날씨 7 ~ 1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4/15, 동두천 3/16, 가평 2/15, 파주 3/16, 서울 7/17, 양평 4/15, 인천 8/15, 수원 8/16, 용인 8/16, 평택 5/16, 백령도 11/1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시진핑 3기’에 떠는 中 기업인들... “투자보류·이민 검토” /사진 뉴시스
▲日, 실질임금 6개월 연속 감소... “임금 증가 고물가 따라잡지 못해”

▲‘60억 지구’는 이제 옛말1세계 인구 내주 80억 돌파 예정
▲美중간선거 사전투표 참여 열기 높아... 4300만명 넘어서



▲中정부, 美제재로 곤경 빠진 화웨이에 ‘기술 자립’ 강조
▲트럼프 “오는 15일 중대발표”... 대권 재도전 선언 관측 /사진 뉴시스